



루터의 도시를 가다

11

바르트부르크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루터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귀가하는 길에 납치극을 연출한 작센공에게 이끌려 바르트부르크 성에 오게 된다. 정치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채에서 루터가 받은 소명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외부의 위협이 차단된 성채에서 성경 번역에 몰두하게 된다. 일반 백성들

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다 순교를 당한 선례가 있기에 루터의 성경 번역 역시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은 여러 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첫째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전까지 백성들은 사제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것에만 의존해 왔다. 그러던 것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되면서 신앙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 둘째, 영적 각성 나아가 자아발견이라는 새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다른 면에서 인간의 재발견이라는 과제를 인류에게 선사하였다. 셋째, 성경 번역은 독일 정신과 언어의 통일을 가져왔다. 여러 공국으로 분산되어 있던 독일어권이 루터의 문서 선교적 작업으로 서서히 연합의 가능성을 가져왔다. 넷째, 루터는 신약을 먼저 번역했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은 정치적 의미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 연합을 수공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개혁세력의 집결을 불러왔다. 다섯째, 성경을 읽기 위해 여기저기 학교가 세워지고 이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열정에 불이 붙게 되었다. 독일의 낙후된 문화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계기가 바로 성경 번역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은 영국에 영향을 주어 킹제임스 번역을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케 하는 열의에 불을 당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의 전파는 신앙 형성과 신앙 고백 외에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성경은 문맹을 퇴치하게 하였고, 윤리 의식을 함양시켰고, 사회성을 고양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사회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